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631.9	18.8	129,500	3.6	1.6	-10.5	35.0	90.2	43.3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490.2	21.6	398,500	1.5	-6.8	22	4.6	5.4	4.5	0.7	0.6	14.1	14.7
현대알렉스트릭	972.6	7.1	95,300	-2.8	-17.5	-18.9	-164	9.0	7.9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64.2	9.1	168,500	0.6	-14.7	0.3	-0.3	10.7	7.9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3,459.3	18.8	8,870	5.2	1.7	-27.9	21.0	55.9	27.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138.5	5.4	20,050	5.8	10.8	9.6	44.2	8.5	7.6	0.5	0.4	5.6	6.0
현대미포조선	2,050.0	13.3	102,500	3.4	-1.0	8.0	30.2	22.1	16.0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60.0	6.4	3,395	-0.3	-4.4	-9.3	2.6	68.3	17.0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463.2	36.1	59,400	-0.2	7.6	8.4	9.2	10.5	102	14	13	14.6	13.3
두산밥캣	3,538.8	27.4	35,300	1.7	-1.0	7.9	-1.4	12.9	122	1.0	0.9	7.4	7.6
현대로템	1,275.0	25.5	15,000	0.0	-10.4	-22.1	-20.0	19.3	132	0.9	0.8	4.5	6.3
하이록코리아	341.7	48.0	25,100	-1.2	-2.5	-4.2	11.6	11.4	104	1.0	0.9	8.8	9.0
성광밴드	348.9	16.0	12,200	1.2	5.2	28.3	22.2	1,078.5	43.7	0.8	0.8	0.1	1.8
태광	364.4	16.8	13,750	0.7	-3.2	33.4	14.1	82.1	40.1	0.9	0.8	1.0	2.1
두산중공업	1,543.7	9.5	14,500	0.3	-7.6	-11.0	-5.5	11.2	9.0	0.5	0.5	4.3	5.3
두산인프라코어	2,153.0	13.3	10,350	3.6	-7.2	15.9	19.1	9.1	8.3	1.0	0.9	11.3	11.3
두산엔진	273.8	3.7	3,940	2.1	-5.4	-18.8	6.9	-39.5	-369.4	0.5	0.5	-1.3	-0.1
한국항공우주산업	4,537.5	17.3	46,550	25	-12.0	-11.2	-1.9	30.0	21.4	3.3	3.0	11.6	14.6
한화테크윈	1,454.4	14.0	27,650	1.5	-17.2	-24.9	-22.2	16.5	11.9	0.6	0.6	3.7	4.9
LIG넥스원	1,078.0	10.4	49,000	-2.2	-9.6	-14.5	-18.1	17.2	128	1.6	1.4	9.6	11.7
태웅	432.2	2.8	21,600	2.9	-0.7	16.8	11.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40.7	5.0	8,920	3.4	39.6	83.4	76.6	-371.7	52.8	2.6	2.6	-0.7	5.0
한국기본	296.3	16.2	6,740	-4.0	4.7	18.4	25.7	50.3	34.8	0.9	0.9	1.8	2.6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SIW: 신조선가 지수 126p, 중고선가 지수 96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6p, 중고선가 지수는 96p를 기록함. Maersk Line은 현대중공업에 보유하고 있던 15,226TEU급 컨테이너선 2척의 옵션을 행사했고, 인도는 2019년으로 일정을 알렸음. 중국 COSCO HI Yangzhou는 Union Maritime에서 6.4만DWT급 벌크선 2+1척을 수주함. (Clarksons)

Waterfront inks in MR quartet at Hyundai Mipo

스웨덴 Marininvest와 일본 선사들은 Waterfront Shipping을 통해 현대미포조선에 4.9만DWT급 PC선 4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총 4척 중, Marininvest 2척, NYK 1척, 일본선사 JV 1척으로 나눠서 소유할 예정임. 선박은 캐나다 메단을 생산업체 Methanex에 용선되며, 2019년 인도 예정임. (TradeWinds)

Yang Ming presses ahead with 20-ship newbuilding order

대만선사 Yang Ming은 11,000TEU급과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추가 중이라고 대만거래소에 공시했다고 알려짐. 11,000TEU급 10척은 용선을 하고, 2,800TEU급 10척은 자체적으로 발주할 계획임. Yang Ming은 관련 입찰 및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계약 체결 후 선거와 조선소를 공개할 예정임. (TradeWinds)

Imabari battles with late delivery of Elcano ships

일본 Imabari 조선소는 스페인 선사 Elcano에서 수주한 LNG선 2척의 인도가 약 9개월 지연됐다고 알려짐. 14년 초, 멤브레인 타입의 17.8만CBM급 LNG선 2척이 17년 2분기 인도로 발주됐지만 지연됨. 해당 LNG선은 Mitsubishi Corp의 지원으로, 5년만에 수주한 LNG선이나 인도가 지연된 상황임. (TradeWinds)

H-Line moves into tankers with Hyundai VLCC order

H-Line은 현대중공업에 30만DWT급 VLCC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선가는 8,500만달러로 조정되며, GS칼텍스에 장기 용선될 전망임. H-Line은 처음으로 텅커 시장에 진출하며, 인도는 2019년 말로 알려짐. H-Line은 작년 중국 Dalian 조선소에 VLCC를 발주하려 했으나 계약이 취소됐다고 알려짐. (TradeWinds)

현대미포, 컨테이너선 추가 수주 성공

현대미포조선은 일본 선사로부터 1,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구체적인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클락슨 기준 1,700TEU급 컨테이너선 선가인 척당 2,250만달러로 예상됨. 이번 수주로 현대미포조선은 MR탱커를 건조한 후 남는 공간을 컨테이너선 건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BN)

Wan Hai fires starting gun on \$240m regional boxship order

대만 Wan Hai Lines은 낮은 선가를 이용해, 2020년 인도를 목표로 2,800TEU급 컨테이너선 신조선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조선소에 접촉했다고 알려짐. 선가는 척당 3천만달러로, 총 2.4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Wan Hai는 2년 전 일본 조선소에 신조를 발주했으나 계약을 취소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Turkey starts taking fresh soundings for large FSRU

업계에 따르면 터키 국영기업 Botas는 터키의 세 번째 FSRU를 위해 조선사에 구매문의를 했다고 알려짐.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터키 북서쪽 Saros Bay에 설치될 전망임. 터기는 가스수요 증가와 전력부족에 대응하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다.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